

한라산 백록담 물과 백두산 천지 물이 하나된다

文 대통령 “우리땅으로 백두산 오르는 소원 이뤄”

평양서 백두산, 다시 서울로

“남측·해외동포도 올수있길 바래”
文, 김 위원장 손 잡고 추켜올려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백두산 여행의 꿈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문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했다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백두산 트래킹을 제안한 것. 이번 제안으로 문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등반을하게 됐다.

20일 오전 6시39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양복차림의 문 대통령 부부는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 나섰다. 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보이자 영빈관 북측 직원들은 북도 양쪽에 서서 문 대통령 부부를 박수로 환송했고 문 대통령 부부는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차에 올라탄 문 대통령은 나무가 빠삐이 우거진 길을 지나 평양거리에 들어섰다. 지난밤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거리에는 정상회담 첫날에도 마주했던 평양 시민들이 있었다. 평양시민들은 꽃과 한반도기를 들고 “조국통일”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창문을 열어 손을 밖으로 내민 후 평양시민들을 향해 작별인사를 했다.

평양시민들의 외침이 잿아들 즈음 문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도 평양시민과 군악대 의장대의 환송은 이어졌다. 문대통령은 공군2호까지 이어진 레드 카펫을 걸으며 김영남 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으로 떠나기 전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 북측 근무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장군봉을 방문한 후 백두산 천지로 이동하기 위해 케이블 타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임원장을 안내를 받아 수행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군 2호 비행기에 올랐다.

8시 20분 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 내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 부부는 반갑게 문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쌀쌀한 날씨에 백두산에 오르기 전 문대통령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김정숙 여사는 흰색 코트와 파란색 머플러를 둘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자동차를 타고 백두산의 정상 장군봉까지 향했다.

이른 새벽부터 흐렸던 장군봉의 하늘은 문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금세 맑은 하늘을 내보이며 천지를 비췄다. ‘3대가 복을 쌓아야 그 후손이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그 천지는 이날 남북정상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사람들과 해외동포가 와서 백두산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긴 아무래도 위원장과 함께 손을 들어야겠다”는 말을 하며 김 위원장은 손을 잡고 하늘높이 들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케이블카가 있는 간이역, 항도역에 도착해 백두산 천지로 향하는 케이블카에 올랐다. 남북 정상 내외가 탄 1평 남짓한 케이블카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10시 20분 백두산 천지에 도착한 문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천지 주변을 산책했

다. 이날 김 여사는 가져온 500ml 생수병에 담겨 있던 제주도 한라산 물은 천지 물과 함께 섞었다.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삼지연 초대소에서 마지막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삼지연공항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쉬운 작별인사하고 서울서 만날 날

을 기약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 공군2호기에 올라 서울에 도착했다.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 받는 백두산 천지를 남북 정상 내외가 동반 산책한 것은 4.27회 담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귀국

文 대통령, 2박3일 일정 마쳐
김정은, 연내 서울방문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의 남북정상 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비핵화 실천방안이 논의됐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군사 합의서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들 간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다는 평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백두산 장군봉 방문을 끝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2박3일 동안 진행된 이번 3차 남북정상 회담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역사에 남을 수많은 이야기리를 남겼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공동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합의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안’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 방문이 실현된다.

정상회담 첫째날인 지난 18일 문 대통령 내외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 부부를 만난 뒤 무개차에 올라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양시

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환영 인파들은 두 남북 정상을 향해 분홍색과 붉은 색 조화를 흔들면서 ‘조국 통일’ 같은 열광적인 슬로건을 외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정상은 공식석상 외에도 식사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등 회담기간 동안 친분을 다졌다. 지난 19일에는 오찬은 옥류관에서 북한의 대표음식인 평양냉면을, 만찬은 지난 7월 개점한 대동강 수산물식당 ‘봄맞이 빵’에서 함께했다. 대동강 수산물식당은 1층에는 철갑상어·연어·질색송어·조개류 등을 모아놓은 실내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2층 식당에서는 갖은 생선회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조밥식사실에서 식사 중인 북한 일반 주민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하며 악수하기도 했다.

19일 밤에는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시 간여동안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며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화답하기도 했다.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5.1 경기장은 15만명에 달하는 평양시민으로 가득찼다.

한편 문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은 백두산 방문을 마치고 공군 2호기편으로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서해항로를 통해 성남 서울공항으로 돌아왔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KB증권 해외/국내주식 통합 MTS 출시!

M-able과 함께 빠르고 편리한 해외주식 매매가 시작됩니다!

특징 1 하나의 화면에서 해외/국내주식 현재가 조회 및 주문 가능 (미국·홍콩/중국/일본/僻地 등 주식 가능)

특징 2 하나의 관심종목에 해외/국내주식 조회 가능

특징 3 해외주식 컨텐츠 추가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동일업종의 기업 비교분석 제공
- 해외 ETF 비교 분석자료 제공
- 해외주식 적립식 매수 가능

• 해외/국내주식 통합 MTS 출시기념 이벤트 헬로우 M-able

이벤트 1. M-able 해외주식 거래이벤트 2018.07.16 ~ 2018.10.31
대상: M-able로 해외주식을 매매한 고객
상품: 스타벅스 카페리데 교환권 1매 증정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이벤트 2. 2018년 해외주식 입고/매수 이벤트 2018.01.22 ~ 2018.12.31
대상: 대체입고/매수거래가 있는 해외주식 첫 거래고객 및 이탈고객
상품: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해외주식 자산 1억원 이상 연속 91일 보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18-02965호(2018년 7월 1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거래 수수료 미국 오프라인 0.5%(최소수수료 \$10), 온라인 0.25%(최소수수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시스템 및 거래시간, 수수료 등이 상이합니다. *인드는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증권